

검찰, 최윤종 구속기간 오는13일까지 연장...“범행 규명”

신림동 성폭행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범행의 동기 등 전말 모두 규명 위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 등 전말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들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달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를’, ‘공연음 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를을 구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된 북한기 훈련에 참가했고, 이때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사 결과 최윤종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유유나기자



잠수교 두뽀두뽀 축제 재개

3일 오후 서울 한강 잠수교 일대에서 열린 '잠수교 두뽀두뽀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의혹으로 확대

일행 15명 전원, ‘마약 혐의’ 입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이 ‘집단 마약’ 수사로 확대된 모양새다. 10여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고 당일 모임의 성격부터 마약 유통 경로, 경찰관의 사망 원인까지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숨진 경찰관 A씨와 같이 있었던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8명의 인원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임 참석 인원이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게 있다고 불러서 모임에 갔고, 마약이 깔려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5명 전원을 입건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피의자 진술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모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의사,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인원이 모였는데, 이

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된 배경이 ‘마약’인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왔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참석자는 “운동 동호회 멤버”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어느 정도 양의 마약을 어떤 경로를 거쳐 마련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마약이 준비됐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심인데, 공금책 확인을 거쳐 정확한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A씨의 사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A씨도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A씨가 많이 취해 방으로 들어갔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락 당시 충격으로 당시 다름의 흔적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부검)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해 둔 상태”라며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